

‘모세가 이드로의 말 대로 행하다’

나 주님의 입류가 직접적이며 동시에 간접적일 때 그때는 선을 지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간접적인 입류는 사람의 외적이고 감각적인 곳까지 흘러들어 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때 주님은 선으로 사람을 이끄신다. (AC.87 01)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8701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influx of truth Divine is immediate in the first state of man when he is being regenerated; but that the influx is immediate and mediate in the second state, that is, when he has been regenerated. When the influx is immediate, the Lord indeed flows in with good and truth, yet the good is not then perceived, but truth; therefore the man is then led by means of truth, not so much by good. But when the influx is at the same time mediate, then good is perceived, for mediate influx is into the man's external sensuous; hence it is t

모세가 이드로의 말 대로 행하다

²³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²⁴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²⁵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며 ²⁶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²⁷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출18:23-27)

주님의 입류(*influx*)가 직접적일 때는 주님은 선과 진리로 흘러들어 오시지만, 그러나 그때 사람은 진리만 지각할 뿐 선은 지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때 사람은 진리의 인도를 받고 선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못한다. 그러

출18:23-27

‘모세가 이드로의 말 대로 행하다’

hat the man is then led by the Lord by means of good.

이는 출애굽기 18장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에 관한 주석 중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Thou art not able to do it, thou alone.)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청주 교회에서는 출애굽기와 누가복음 말씀을 격주로 전해 드렸습니다. 혹시 청주 새 교회 설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절기나 행사 때가 아니면 그동안 했던 방식대로 출애굽기와 누가복음 말씀의 속뜻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니 모세가 백성들의 일을 처리하

느라 앉아 있고, 백성들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¹⁹...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²⁰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²¹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²²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출18:19-22)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모세도 자기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백성들도 편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직접적으로 일을 돌보면 그 일이 과중하니 지도자를

‘모세가 이드로의 말 대로 행하다’

뽑아 간접적으로 다스리라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내적 의미, 그 속뜻은 한마디로 주님이 사람을 이끄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직접 이끄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간접적으로 이끄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시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모세는 진리이신 주님을, 이드로는 선이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즉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는 것은 우리 각 사람 내면에서 진리와 선이 서로 만나 하나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선이며 동시에 진리이신 분이데, 왜 떨어져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선이시며 동시에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내면으로 오실 때에는 선 따로, 진리 따로 오시지 않고요, 선과 진리가 하나이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는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

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진리만 받아들이고 선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진리 측면만 지각하고, 선 측면의 주님은 전혀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느끼고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주님의 어떤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은 사람이 처음 거듭나기 시작할 때 진리만 가지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선이 없는 것입니다. 선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 속에 진리만 있고 선이 없는 것인데요, 그러면 진리만 가지고도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진리로 시작하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주님을 알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행동으로 옮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진리만 가지고 먼저 거듭남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모세 혼자

출18:23-27

‘모세가 이드로의 말 대로 행하다’

백성들을 돌보는 모습은 주님께 서 진리만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없는 진리는 마치 알맹이가 없는 열매의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지요. 우선 진리에 어긋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커피를 마셨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커피의 그 달콤한 맛을 끊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몇십 년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영적인 것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강력한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떨어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떼어놓는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선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만 가지고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선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으로부터 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배운 진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삶으로

옮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단어를 하나 배우면 계속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진리에 맞지 않는 습관들이 있으면 끊어야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또는 진리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보통 고집부린다고들 하지요. 저도 고집이 센 편인데 고집이라는 것이, 진리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도 아내와 다툴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다투고 나면 제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진리에 맞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가 아닌데 자꾸 우겼던 경우도 있고요, 진리이지만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제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사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러나 잘못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 앞에 나를 낮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낮출 때 우리 속에서 잠자고 있던 이드로, 즉 선이신 주님이 깨어나 진리이신 주님인 모세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

‘모세가 이드로의 말 대로 행하다’

고 그때 주님은 이제 직접 이끄시지 않고요,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혼자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고 지도자를 뽑아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직접 그리고 동시에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23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드로가 말한 ‘이 일’이란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 즉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뽑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영적 의미로는 앞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신앙인들을 이끌어 나갈 간접적 진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들은 모두 우리 내면에 있는 진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동안 진리를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배운 진리들을 통해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지도자를 뽑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영향력 있는 진리들을 택해 주님 자신과 그 진리들을 서로 연결하시는 일입니다. 진리 중에는 다른 많은 진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처럼요. 우리 내면에 있는 진리의 지도를 보면 제일 높은 곳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고, 그 아래 두 번째 층에 또 다른 진리들이 있으며,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혼자 있는 진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영향력 있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위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영향이 가장 밑에까지 흘러 내려가니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진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 진리들이 가장 높은 진리의 층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영향력 있는 진리들이 주님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실

출18:23-27

‘모세가 이드로의 말 대로 행하다’

천하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영향력 있는 진리들을 택해 당신 자신과 연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향력 있는 진리들 속으로 주님의 생명인 선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이전처럼 껍데기뿐인 진리가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진리, 생명 있는 진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직접적이며 동시에 간접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직접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들에 주님이 당신의 생명의 젓줄을 대신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간접적이라는 것은 그 진리들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끈다는 측면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다스리는 진리들은 이전과 같이 진리뿐인 진리가 아니고요, 이제는 선까지 동반한 진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진리가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섭리하시지 않고 간접적 진리들을 통해 섭리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선이나 진리는 인간의 감각에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각은 보고 듣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어두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익숙해 있을 뿐,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것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아주 예민한 기관 같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어두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 진리를 통해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진리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수준을 낮춘 진리이고요, 천국의 천사들을 통해 보내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천국의 천사들을 통해 깨우침을 주시는 그런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접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간접적 진리랴 우리의 이성을 움직이고 감각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직접적이며 동시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말 대로 행하다’

주님께서 직간접적 방법으로 이끄실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때부터는 진리로 살지 않고 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 곧 진리로 사는 것과 선으로 사는 것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대부분 진리로 살지요. 선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데는 대단히 인색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잘 봅니다. 그래서 지적을 잘하고 비판을 잘하지요. 그러다 보니 진리로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 또는 선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반면,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악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선으로 사는 사람들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주님의 거처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악한 영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사

람들을 상대로 싸움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할 때 싸움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내면의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 선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모든 백성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곳**’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가 아니라 선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평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지옥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들지요. 그러나 선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악한 영이라도 그를 시험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 가운데 항상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²⁴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출18:23-27

‘모세가 이드로의 말 대로 행하다’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²⁵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수많은 진리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학문적인 지식도 있겠고요, 또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예를 들면 컴퓨터를 잘 하는 지식 등 여러 가지 지식이 있겠지요. 또는 철학이나 종교적 사상 같은 것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진리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진리들을 택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간접적으로 다스리려고 하십니다. 그 간접적 진리들이 모세가 택한 천부장이며, 백부장이며, 오십부장, 십 부장입니다. 그러면 백성의 우두머리로 표상되는 간접적 진리들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릴까요? 그것을 26절에서는

²⁶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들이 백성을 재판한다는 말은 그 간접적인 진리들이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판단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단하는 것마다 선하고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을 재판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용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다만 그 간접적인 진리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쉬운 일은 자기가 하고 어려운 일은 주님께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주님께 물어서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진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중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진리를 통해 늘 주님과 대면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작은 일은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재판한다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만 주님께서서 섭리하시고 사소한 일은 우리 생각대로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모세가 이드로의 말 대로 행하다’

건축한다거나 또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같은 중요한 일만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아내와 담소를 나누고, 출근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동료들과 가벼운 농담을 하고, 이러한 것은 주님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직간접으로 섭리하실 때 이러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관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이 유입된 진리를 통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한다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모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소한 농담에도 사랑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는 농담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농담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²⁷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신앙인들의 내면에서 선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내면의 교회를 다스리는 정부(政府)가 바뀝니다. 국가에 정부가 있듯이 우리 내면에도 정부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기 전의 것이 진리의 정부였다면 모세와 이드로가 만난 다음에는 선의 정부, 사랑의 정부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다스리는 상태에서 선이 다스리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될 때 선으로서의 주님은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당신의 자리인 신성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이드로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지도자를 뽑아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

출18:23-27

‘모세가 이드로의 말 대로 행하다’

성을 다스립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삶이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나 우두머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일을 다 하다 보면 일이 지체되기도 하고요, 의사결정의 시기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직에서는 일을 나눠 서로 분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홀로 지으시고 혼자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백성들 중에서 뽑아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무조건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먼저 주시고, 그것을 통해 천천히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은 우리 내면에 있는 진리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키워주신 성숙한 진리들입니다. 주님은 그 진리들에 당신 자신을 연결하셔서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하시지만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신 선 안에 있을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103:1)

아멘

원본

2016-12-11(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1-04(D4)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